

2026 희망봉 <한글날> 백일장 수상작 (심사평: 장승규 시인)

<초중등부>

김정현	10년 뒤 가족들에게 쓰는 편지(우수작)	R1 000
김도현	세종대와님께 드리는 글(우수작)	R1 000
이주아	마술사 빛(우수작)	R1 000
송라임	신분은 낮아도 꿈은 하늘 높이(가작)	R500

<일반부 운문부문>

이미숙	그 집에 들다(최우수작)	R3 000
김채린	초점(우수작)	R1 000
김서울	하교(가작)	R500
김민영	10살의 봄(가작)	R500

<일반부 산문부문>

김예진	칸나를 위하여(최우수작)	R3 000
김채린	개미세기(우수작)	R1 000
이재국	집으로 돌아가는 길(가작)	R500
김태리	팝송가사를 베껴 적던 아이에게(가작)	R500



장승규 시인

<프로필>

Supex Ltd 대표

K-장학재단(www.kscholarship.com/kr/)이사장

시마을(www.feelpoem.com)동인

시집: <당신이 그리운 날은>(2003), <민들레 유산>(2018),

<희망봉에서 그대에게>(2020) 등

단편집: <길이 되어 누워보니>(2025)

supexsam@hanmail.net / kscholar@supexgroup.com

2026 <희망봉> 한글날 백일장 심사평

이번 초중등부 응모작 심사에서는 자기의 생각과 느낌을 자기 목소리로 표현했는지, 참신한 상상과 구체적인 이미지로 독자에게 전했다는 점을 살폈다.

우수작으로 선정한 김정현의 <10년 뒤 가족들에게 쓰는 편지>는 축구선수가 된 미래의 자신을 상상하면서도 어머니의 말과 집밥, 반려견에 대한 그리움을 생생하게 담았다. 먼 곳에서도 한글로 가족에게 마음을 전할 수 있다는 깨달음이 편지의 온기를 더했다. 김도현의 <세종대왕님께 드리는 글>은 남아공에 살면서도 마음속에 한글의 씨앗이 자라고 있다는 생각이 어린 필자의 소망과 어우러져 따뜻한 여운을 남겼다. 이주아의 <마술사 빛>은 걸음을 따라오는 그림자를 탐정처럼 바라보고, 저무는 해를 내일의 공연을 준비하는 마술사로 그려 자연의 변화를 즐겁게 발견했다.

최우수작을 선정하지 않았다. 앞으로도 남의 생각을 빌리기보다 자신이 보고 겪고 느낀 것을 소중히 써 나갔으면 한다.

이번 일반부 운문 부문에 최우수작으로 선정한 이미숙의 <그 집에 들다>는 북쪽의 고향을 향하던 마음에 어느새 남쪽을 향한 그리움도 자랄 수 있다는 이민자의 내면을 '더듬이'라는 이미지로 섬세하게 담았다. '칠월의 겨울'과 '빵으로도 거뜬한 아침'에는 낯설었던 땅이 삶의 터전으로 바뀌어 온 시간이 스며 있다. 돌아가고 싶은 '집'에서 오늘 들어가는 '그 집'으로 이어지는 흐름과, '더듬더듬 든다'는 마지막 표현이 서로 호응하며 소속과 정착에 관한 깊은 여운을 남겼다.

우수작 김채린의 <초점>은 흔들린 꽃잎과 번진 빛 속에서 오히려 마음을 선명하게 읽어내는 역설이 돋보였다. 가까이하고 싶은 마음을 꽃의 이미지에 겹쳐 놓아 사랑의 떨림을 암시하며, 사진의 초점을 마음의 초점으로 옮기는 발상을 간결하게 이루어 냈다.

수상작들은 저마다 다른 목소리로 삶의 한순간을 붙잡았다. 앞으로도 감정을 설명하는 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자신만이 발견한 장면과 언어로 독자의 마음에 오래 머무는 시를 써 나갔으면 한다.

이번 일반부 산문부문에 최우수작으로 선정한 김예진의 <칸나를 위하여>는 아이에게 심술을 부리려고 고른 꽃이 오랜 동행 끝에 사랑과 성찰의 대상이 되는 과정을 설득력 있게 그렸다. 화분에 남은 아이의 글씨와 마당에서 불꽃처럼 피어난 칸나, 새 주인에게 꽃을 부탁하는 장면에 가족의 시간이 자연스럽게 스며 있다. 특히 함께 키운다고 생각했지만 실은 지배했을 뿐이라는 깨달음은 자신을 돌아보는 깊이를 보여 주었다. 애정 어린 유머와 솔직한 자기 성찰, 만남에서 이별로 이어지는 짜임새를 높이 평가했다.

우수작 김채린의 <개미 세기>는 바다보다 개미에 몰두했던 어린 시절의 사진에서 출발하여, 행복마저 계산하게 된 현재의 자신을 돌아본다. 사진 속 나무를 세대 사이의 경계로 보았다가 모두의 시간을 품은 존재로 다시 바라보는 전환이 인상적이었다. 유년을 그리워하던 시선이 조부모의 삶과 시간을 대하는 태도를 헤아리는 데까지 넓어지며 사유의 깊이를 이루었다.

좋은 산문은 자신의 경험 속에서 미처 알지 못했던 삶의 의미를 발견하게 한다.

이번 수상작들에서도 그러한 발견의 기쁨을 만날 수 있었다.

끝으로 2026년 올해 <희망봉>백일장에 응모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끝-